



행복한 에너지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Family

201801



2018년 1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K-Message** | 경영 메시지
- 12 **Focus** | 2017 KEPCO E&C News Top 10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20 **일하며 즐기며** | 이탈리아 돌로미티 알타비아 1 트레킹(II)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8 **신성장지도** | 청정 자연의 고원, 동계올림픽의 도시 - 평창
- 34 **Storytelling** | 실로 빼어난 경치는 예쁜 여자처럼 사람을 홀리는구나
- 36 **생활과 과학** | 지열로 읽는 지리여행의 가치
- 38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 40 **KEPCO E&C NEWS** | 2017년도 제10차 이사회 개최 외
- 42 **한기씨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 44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6 **Poem** | 망해사
- 47 **에코포토** | 빛나는 하루



통권 432호 · 발행인 조직래
 발행일 2018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초심(初心)에서 다시 뛰는 2018년(무술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멀리 UAE 바라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각지와 영광, 울진, 월성, 고리 등 국내현장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 여러분께도 안전과 건강의 염원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작년 2017년은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 경영지표가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새해를 시작했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경영환경의 급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EU시장에서 APR1400의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원전 해외진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최악의 경영상황에서도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돌발적 리스크(Risk) 요인들을 잘 관리해냄으로써 적정 수준의 경영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임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새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한기 주력사업의 매출 지체(遲滯)로 영향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기 독자적 역량으로 시장 입지를 다질 수 있을 만큼 경쟁상대들이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결코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영환경은 우리 역량 수준에서 박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한기의 성장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를 잡고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 토대(土臺)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명심하고 매진해야할 새해 목표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기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갑시다.

한기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면서 불모(不毛)의 기술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는 한기의 DNA와도 같은 자랑스런 기질(氣質)이 되었습니다.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목표로 도전하던



시기에 우리의 투지(鬪志)와 의욕(意欲)은 넘쳤습니다. 설계기술 자립 이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혁신(革新)했고, 또 지금은 무엇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기업들은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도전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동력으로 삼아 성장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공에 도취해 잠시 잃어버렸던 투지(鬪志)와 의지(意志)를 불태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정(熱情), 성실(誠實), 도전(挑戰)의 위대한 한기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2018년을 새로운 역사의 원년(元年)으로 만들어 갑시다.

둘째, 핵심기술의 확보와 강화에 매진해야 합니다.

한기의 전통적 주력사업은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술로 질적(質的) 향상을 이뤄 냈습니다. R&D 수행체계는 내실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시장 창출의 기회와 성과로 연결되는 R&D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사업(新事業)은 기존의 틀을 깨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장과 경쟁의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여 한기의 강점을 부각함으로써 성장동력의 단단한 축(軸)으로 정착시킵시다.

셋째, 경영시스템 혁신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생존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경영효율화와 시스템 혁신을 통하여 견고함과 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차산업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적(量的) 성장시대의 의식과 관행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일하는 방식의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갑시다.

한기의 최고 자산은 인재(人材)입니다. 적어도 한기에서 만큼은 고령화 추세가 비효율과 저성장으로 통용(通用)되어서는 안됩니다. 선배들의 관록(貫祿)과 경험(經驗)은 후배세대들의 참신한 사고(思考)와 융합함으로써 창조와 혁신의 밑거름이 되도록 인력운영의 혁신도 게을리 하지 맙시다. 아울러 누차 강조하지만 고객신뢰의 기반이 되는 품질혁신과 청렴윤리 정착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넷째, 소통하고 열려있는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엔지니어링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결합되고 융합되어야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우리 회사에 가장 부합한 명제(命題)입니다. 직원 각자의 역량을 최고로 키워내고 그 최고들을 꿰어서, 최고의 가치와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공통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모든 난관을 한 마음으로 극복해 가는 위대한 한기 문화를 정립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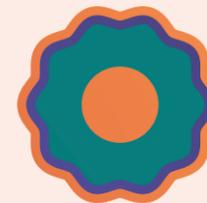
한기가족 여러분

올해를 상징하는 동물인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친근함과 신의(信義), 용기(勇氣)와 지혜(智慧)를 함께 지닌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伴侶)의 동물이면서 인간 수호(守護)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신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신임 사장님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임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부응하여 도전과 성장을 신속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만반(萬般)의 준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남은 시간동안, 본부/단장, 부서장을 중심으로 사업과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사장 직무대행 조 직 래



소통과 화합 속에서 청렴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2018년



존경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좌절과 희망이 교차했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의 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기에 또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며 새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본연의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희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2018년은 다시 한번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장(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요한 경영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지성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는 '행운(幸運)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機會)이며,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은 새로운 투지를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라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하여 빠르고 탄탄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제2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행히 해외 에너지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 무어사이드(Moorside) 원전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서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갑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사업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직과 인력, 기술과 영업력의 강화에도 더욱 매진한다면 한기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도전과 응전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통(疏通)과 화합(和合)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화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해에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각 부문의 전문성이 서로 어우러지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때 최고의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사 간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부서 간에는 회사의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동료 간에는 한술밥을 먹는 가족의 심정으로 함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합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회사는 0.02점 차이로 청렴도 우수기관 등급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협력회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에서 평가한 청렴도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괄목할만한 상승을 이뤘습니다. 반면에 내부평가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매우 엄격한 평가를 함으로써 내부 청렴도 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임감사로서 우수 등급의 실적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청렴 잣대의 눈높이가 훨씬 성숙해졌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큰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016년도에 비해 괄목할만한 등급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정부도 2018년 새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사회 만들기'를 천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회의(가칭)'를 발족함으로써 국민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도 경영평가 5대 지표에 윤리경영을 포함시킴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한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8년은 우리 회사가 청렴 일등 공기업으로 자리잡는 해로 정하고 상임감사는 물론 임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새로운 기업문화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한기인의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도전에 정면으로 응전해 나갑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생즉사(生即死)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전투에 임했고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3척의 전선(戰艦)으로 300척이 넘는 왜군과의 싸움을 각오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모든 전술과 전략을 통하여 승리의 가능성을 찾고 나서야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줄 불굴의 투지 즉, '사즉생'으로 무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준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18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성장과 청렴 한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기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상임감사 이 동 근

무슨 일을 하든지 영과후진(盈科後進) 하는 자세로 임해야

존경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18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한기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해외 현장과 국내 현장사무소에서 열심히 소임을 다해주셨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원자력본부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한기의 42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신규 건설원전 중지외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결정까지 정책적 측면에서 큰 변화의 물결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올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이산화되면서 사용후 핵연료, 원전해체 등 원전 후행주기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에 지속되는 미세먼지 발생, 포항지진 발생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 한기는 미래 100년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에너지산업 변화의 큰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먼저, 원전해체사업실을 신설하여 원전후행주기 기술 확보 및 사업화 추진기반을 정립하였고, 건설원전의 내진성능 향상 및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등 원전 안전성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조치를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원전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PR1400 유럽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지난 10월 유럽사업자요건(EUR)인증 본심사를 통과하여 인증서를 취득함으로써 유럽 수출길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첫 수출원전인 UAE 사업의 규제기관 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재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UAE 가동원전, 영국 Moorside 원전 및 사우디 상용원전사업 등 후속 해외 원전사업 수주를 통해 더 넓은 해외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기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어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2018년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성공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화합'과 '내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단합하고, 화합하여야 합니다. 시니어의 장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주니어의 열정과 창의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직원 간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는 사람이 곧 핵심역량인 한기의 가장 큰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깊은 샘의 물이 흐르다 웅덩이에 갇히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다시 흘러 결국 바다까지 나아간다는 맹자의 '영과후진(盈科後進)'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또한 변화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힘든 순간을 외면하기보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 더 나은 한기의 모습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새로운 경영환경의 물결을 한기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무술년(戊戌年) 새 해,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직원 여러분 가정에 원하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원자력본부장 조 직 래

승풍파랑(乘風破浪)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야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기쁨보다 묵은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짙어짐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겠지만, 올해도 벽간 기대로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며 새해에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워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해야 하는 도전의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에 안주하여 '새로운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더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새로운 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열하지만 치밀하게 변화와 혁신을 실행해야 합니다.

'먼 곳까지 불어 가는 바람을 타고 끝없이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뜻의 승풍파랑(乘風破浪)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종각이라는 장군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원대한 뜻을 가지고 온갖 난관을 극복해 내겠다고 얘기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작은 파고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고를 넘어서야 하는 우리 한기인도 2018년 변화의 새바람을 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신사업분부는 2018년도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시책에 부응하여 기존 주력사업 외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서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진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 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진취적으로 임하여 한국전력기술을 백년기업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2018년은 한기의 미래, 5년, 10년,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마음 긴 안목 큰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갑시다.

한기가족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에너지신사업본부장 김 재 원



실행력을 갖춘 경영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무술년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18년 황금개띠의 무술년(戊戌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한기가족 여러분께 황금빛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유례없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국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주신 한기가족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한기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간 기타공공기관의 지위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공적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략, 혁신, 재무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5월 새로이 출범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구체화되어, 기존 주력사업 외 달성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과 성과창출의 시기를 시급히 앞당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 경영관리본부는 이러한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한방향 경영체계(Alignment Management)를 구현하고 수립한 경영전략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중장기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핵심사업의 친환경성·안전성 강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성과 창출을 위한 신사업 발굴과 기술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동반성장, 선진 윤리경영체계 정착,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체계를 고도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성장을 위한 도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소통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공동된 목표를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2018년을 만들어 갑시다.

한기가족 여러분, 2017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새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 류 흥 제



풍운지회(風雲之會) 하는 한 해가 될 것을 꿈꾸며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역사의 지평선으로 저물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기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을 돌아켜보면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일촉즉발의 긴장 정세(政勢),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 트럼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사드관련 중국과의 갈등 등이 국내외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 선언,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및 건설 재개 등이 원자력 및 에너지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과 사업개발에 매진하였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설계 역무도 최선을 다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EU-APR 표준설계에 대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 캐나다 달링턴원전 2호기 원자로부품 납품완료 및 후속호기(1,3,4호기) 추가 납품계약, 원전안전해석코드(SPACE) 해석방법론 인허가 취득 및 유지보수 협정 체결 등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은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국민이 국운이 상승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이 바람과 구름을 만나 천하의 기운을 얻는다는 풍운지회(風雲之會)란 말처럼, 결코 녹록치 않은 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 해로 만듭시다. 국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해외 최초 건설 원전인 바라카원전 1호기 운영허가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건설계개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차질과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국민 신뢰 회복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합시다. 특히, 한국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SMART 실증로 건설뿐만 아니라 APR1400 원전 건설사업도 수주하여, 명실상부한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로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합시다.

한기가족 여러분, 원자력을 비롯한 국내 에너지산업이 에너지 정책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의 환경성 및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및 안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으로 말미암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극단적인 원전 사고에 대한 과장된 공포 내지 막연한 두려움이 전문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감성적으로 양산되고 있어, 對국민 원전산업 신뢰 회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전산업의 주역이자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관심과 우려 사항을 투명하고 철저히 해소시켜 나가면서 원전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기가족 여러분, 희망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준비 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새 길을 여는 인위개로(人爲開路) 자세로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끝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기 재도약의 새해를 소망하며 한기가족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2일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직무대행 김 신 환

2017

KEPCO
E&C
News

Top 10



1st 2017 동반성장 우수 공공기관 부문 수상

- 에너지기술 엔지니어링 공기업으로서 상생협력모델 선도 -



회사는 11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7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우수 공공기관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주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행사기간 중 동반성장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6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우수)을 달성하는 등 많은 사례와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사내 동반성장 협업 추진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로드맵을 실행하는 등 회사에 특화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및 상생협력 체결, 기타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공동기술개발·교육지원 등 협력 중소기업과의 다양한 동반성장 사례들도 만들고 있다. 시상식에서 류홍재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에너지기술 엔지니어링 공기업으로서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반성장을 모범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nd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 국제 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완료 -

회사는 10월 27일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세계 162개국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4월 도입되어 많은 기업들이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추진조직 구성과 사내직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9월과 10월 2차에 걸친 인증심사를 거쳐 ISO 37001 인증을 받게 되었다. 회사는 반부패의지 및 리더십, 부패 리스크 진단 및 평가, 리스크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활동 등 반부패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받음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회사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받게 되었다. 또한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등 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국제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회사는 이번 ISO 37001 인증을 기반으로 후속조직 이행과 청렴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ISO 37001을 포함하여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등 글로벌 경영시스템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3rd

대한적십자사 명예대장 수상 -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모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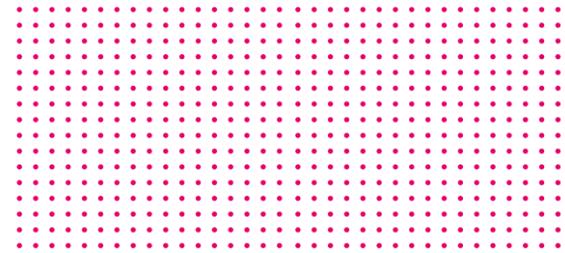
회사는 11월 8일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기념 연차대회'에서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강보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을 비롯하여 적십자봉사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은 적십자 활동 및 사업조성에 공헌하고 모범이 되는 기관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기부 문화에 앞장서 왔으며,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시상식에 참석한 허순길 경영지원처장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th

원전해체와 에너지신사업 전담 조직 구축

-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충 추진 -

회사는 원전해체사업과 신재생 등 에너지신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혁신을 8월 1일 단행했다. 원자력본부 산하에 원전해체사업실을 신설하고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사용후연료 등 원전사후관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연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사업 참여를 통해 원전해체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우리 회사는 2015년에 독일의 프로이센일렉트라(Preussen Elektra GmbH : PEL)사와 원전해체 기술전수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마크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원전해체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원전해체사업실의 신설은 그동안 연구개발(R&D)에 치중했던 원전해체분야의 사업화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확충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 우리 회사 화력발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플랜트본부를 에너지신사업본부로 개편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체제 대응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능형 스마트 혁신도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조직혁신을 통해 원전해체와 에너지신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비전 2025,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미래성장동력의 매출비중을 약 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 화력 등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원전사후관리, 중소형원자로, 융합기술, 청정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신성장사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구원 사장은 "에너지전환의 시장 변화 속에서 에너지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과 에너지 신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번 조직혁신과 함께 시장과 기술변화에 창조적인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6th

ICAPP 2017에서 한국 원전 우수성 홍보

- 한국의 원전 개발 역사 및 미래비전 발표 -

제16회 원자력산업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ICAPP 2017)가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ICAPP는 원자로 기술 개발과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산학연의 기술과 경험교류를 위해 2002년 미국원자력학회(ANS) 주관으로 창립되었다.

ICAPP 2017은 "A New Paradigm in Nuclear Power Safety"를 주제로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현황 및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전망 △새로운 원전 설계/건설 △핵주기 및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후쿠시마 보고서 등을 주제로 하는 본회의 4개 세션과 기술회의 10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계 각국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은 본회의에서 "New Nuclear Power Reactors under Development in Korea"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개발 역사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발표에서는 현재 개발 완료되어 건설 예정인 APR+, 소형모듈원전의 선두주자 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으로 최적화 설계를 진행 중인 SMART, 혁신적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i-POWER 및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Prototype Gen-IV Sodium-Cooled Fast Reactor, PGSFR)의 주요 설계목표 및 안전성 강화 내용 등이 설명됐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혁신적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U-APR 표준설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

5th

회사는 11월 21일 유럽수출형원전인 EU-APR 표준설계에 대한 유럽사업자요건(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EUR)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번 인증은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했다. 2011년 12월 인증심사를 EUR 협회에 공식 신청하고 2년에 걸쳐 예비평가를 받았다. 예비평가결과 본 심사 착수를 위한 조건이 충족돼 2015년 11월 본심사를 시작, EUR 본심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24개월 만에 최종 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EUR 인증은 유럽사업자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형원전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유럽 12개국 14개 원전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신규원전설계를 표준화하고 발주관련 기술적 배경을 정의한 EUR을 제시하고 이 요건에 대한 표준설계 부합성을 평가한다. 본심사에서는 20개 분야, 4,500여개의 방대한 요건에 대한 만족성 평가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620건에 달하는 기술문서를 제출하고, 800여건의 질의응답을 수행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CG(Coordination Group) 회의 등을 통해 본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EU-APR 표준설계 인증 심사에 신규원전 건설 의사가 있는 유럽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으며, EUR 요건을 원전건설사업의 표준 입찰요건으로 사용하는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도 확보하게 되었다.



7th 달링턴원전 2호기 원자로부품 최종분 출하

회사는 지난 8월 28일 미국 시카고 소재 스몰리(Smalley)사에서 캐나다 달링턴(Darlington)원전 2호기에 설치될 원자로부품 최종분을 출하했다. 이날 출하된 원자로부품은 저널링 리테이닝링(Journal Ring Retaining Ring)과 실드슬리브 리테이닝링(Shield Sleeve Retaining Ring) 2종으로 달링턴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교체되는 엔드피팅(End Fitting)의 조립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이다. 리테이닝링(Retaining Ring)은 특수제작이 필요하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 업체에서 제작되었으며, 검사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원자재 확보, 제작, 시험, 검사 및 관련서류의 검토 승인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적 승인이 이뤄졌다. 회사는 지난 7월 10일 국내에서 제작된 원자로부품 3종을 선적한 데 이어 리테이닝링 2종도 선적함으로써 달링턴원전 2호기 원자로부품 납품을 납기 내 완료하였다. 아울러 추가로 수주한 달링턴 1,3,4호기 부품 제작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원자로부품 출하는 우리 회사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제작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이뤄낸 국내 최초의 캔두(CANDU)형 원자로부품 수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회사는 이번 기자재 공급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캐나다를 비롯한 국내외 중수로원전의 부품공급 사업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8th 김천시와 신재생에너지사업 협약 체결 - 스마트 혁신도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공동 추진 -

회사는 지난 8월 29일 경북 김천시와 에너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회사는 김천시와 공동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협력한다. 또한 사업개발 정보공유, 기초계획 수립 및 사업성 검토, 인허가 관련업무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게 된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김천시와 스마트 혁신도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허가 기관인 김천시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 수용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구원 사장은 "달원전-탈석탄 중심의 에너지전환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김천시와 함께 한전기술의 에너지 기술 역량을 살린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한전기술이 세계적인 에너지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천혁신도시 성장과 더불어 김천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8월 1일 신재생 등 에너지신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의 원자력, 화력 등 에너지플랜트 부문 엔지니어링 역량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9th 2017년도 신입사원 임용식 개최

2017년도 신입사원 임용식이 9월 25일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2017년 7월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2개월의 수습과정을 마친 42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사회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사원을 축하했다.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2개월간의 인턴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용의 영광을 안은 신입사원들을 축하하면서,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사 생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입사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창의적으로 혁신하며, 끊임없이 자기역량을 개발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갈 것을 당부했다. 회사는 지난 5월 주요 10개 대학 캠퍼스 리크루팅을 시작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다. 이번 채용에서는 대구·경북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와 여성인력 채용을 위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였다. 김천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중 최초로 혁신도시 내 울곡고등학교에서 필기전형을 진행하였으며, 면접전형 시 외부 면접위원을 확대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이전지역 인재 및 여성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적극 부응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0th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참여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 우리 회사가 참여했다. 우리 회사 인사처 김홍근 사원은 11월 28일 전북 남원 성화봉송 구간에서 주자로 참여해 동료 직원들과 많은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200m를 달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는 지난 10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되어 11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오는 2018년 2월 9일까지 101일간 전국 각지에서 봉송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약 95개 국가에서 6,5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회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스포터로서 대구구간 성화봉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대회가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에도 함께 한다. 회사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올림픽 분위기 조기 확산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겨울비 내린 도로가
불빛을 받아 반짝거립니다.
운전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차에서 듣는 음악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랫말이 유달리 귓가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서른이라는 나이가 언제 적인지
돌아보니 까마득히 멀기만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요.
하루에 이어 또 하루가 오고
한 계절은 꿈무늬를 이어 또 다른 계절이 되고
일 년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부여받은 일 년 어떻게 쓰실 건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올해는 금연에 꼭 성공해야지요.
운동 열심히 해서 살 좀 빼야지요.
가족 여행을 좀 해야겠어요.
모두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시인 롱펠로우의 말처럼
어떠한 운명도 헤쳐 나갈 정신으로
앞만 보고 내달려야 하는 게 인생 같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만물은 따뜻한 기운아래 소생합니다.

바위와 초원이 어울려 춤추는 천상의 고원

이탈리아 돌로미티 알타비아 | 트레킹(II)



돌로미티(Dolomites)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와 오스트리아 남 티롤에 위치한 바위산군으로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알프스 산맥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트레킹 구간에 걸쳐 온갖 만물 모양을 한 날카로운 봉우리의 바위산군, 그리고 바위산군 아래 펼쳐진 천사의 미소와도 같은 평화로운 초원이 함께 어우러져 경이로운 풍광을 선물한다.

셋째 날, 파소 팔짜레고까지 케이블카로 내려와 콜 갈리나 산장(Rifugio Col Gallina) 근처 스키 리프트가 설치된 평원을 지나 맑은편 라가주오이 산장과 토파네 암벽들을 바라보며 언덕길을 험뎅거리며 오른다. 언덕을 두어 개 넘으니 다섯 개 암봉이 우뚝 선 친퀘토리(Cinque Torri)가 보인다. 친퀘토리는 맑은편 토파네와 라가주오이 주봉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평원에 다섯 개의 봉우리가 늘어 서 있는 멋진 풍광과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친퀘토리의 전망이 잘 보이는 스코이아토리 산장(Rifugio Scoiattori)에서 맥주 한잔에 여유를 부려본다. 친퀘토리를 한 바퀴 돈 후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건물과 참호 등을 돌아본다. 스키장 리프트를 따라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아벨라우 산장(Rifugio Averau)에 도착한다. 오늘밤을 보낼 산장이다. 아벨라우 산장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시설도 깨끗하고, 음식 맛도 좋은 곳이다. 가족들이 운영하는지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도 정겹다. 모두들 친절하다. 잊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GPS도 찾아준 고마운 산장이다.



아벨라우 산장 위에 보이는 누보라우 봉우리에는 돌로미티에서 가장 멋진 위치에 자리한 누보라우(Rifugio Nuvorau) 산장이 있다. 누보라우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360도의 돌로미티의 파노라마 풍광은 파란 하늘에 수시로 변하는 구름과 더불어 경이로울 뿐이다. 산장 뒤편 넓게 펼쳐진 암벽들을 바라보며 한껏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뛰어 본다. 산장을 돌아 나오면서 보니 여러 나라 국기 가운데 우리나라 태극기도 눈에 띈다. 이곳도 이제 한국에서도 제법 많이 알려져서 찾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이 곳 누보라우 산장에서 파소 기아우(Passo Giau)까지 내려가는 길은 험준한 암릉 길로 알타비아 1 코스에서 가장 험난한 코스이다.

넷째 날, 아벨라우 산장에서 누보라우 봉우리를 휘돌아 내려오면 파소 기아우가 나온다. 이곳은 돌로미티 드라이브 코스로 사이클과 오토바이 마니아들이 많이 넘나든다. 산장 앞에서 바라보는 거대한 누보라우 봉우리는 마치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봉우리 꼭대기에 누보라우 산장도 경이롭다. 망아지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초원을 지나 포르첼라 기아우(Forcella Giau, 2,360m) 고개를 올라서면 대평원이 펼쳐진다. 멀리 거대한 펠모 암봉이 우뚝 서 있다. 거대한 고산 초원은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구름이 멋진 그림을 그리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초원 한 구석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잡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원은 송아지나 망아지 동들이 널려 있다. 그래도 기분이 좋다.





초원을 지나 거대한 펠모 봉우리 옆구리를 돌아 피우메 산장(Rifugio Fiume)을 지나 스타우란자 산장 (Rifugio Staulanza)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감한다. 오늘 배경 받은 침대는 2층이다. 그런데 2층에 난간이 없다. 넓지도 않은 침대에서 자다가 잘못 뒤척이다가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조심해서 자야겠다.

다섯째 날, 스타우란자 산장은 바로 도로 옆에 위치해 있다. 아침에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데 위험하다고 포장도로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편안한 초원길을 걷다 보면 말가 피오다(Malga Pioda) 산장을 지나 오르막을 만난다.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바라 본 초원길은 실오라기처럼 구불구불 부드럽게 이어진 산길이 정겹다. 콜다이 고개 가까이에 콜다이 산장(Rifugio Coldai)이 자리 잡고 있다. 산장을 지나 콜다이 고개를 넘으면 콜다이 호수가 나타난다. 에머랄드의 오묘한 빛을 뿜는 한라산 백록담 같이 아담한 호수이다.





시베타의 황량하고 험준한 고개 길을 돌고 돌아 나타나는 산장은 티씨 산장(Rifugio Tissi)이다. 누보라우 산장처럼 산꼭대기에 자리한 산장이다. 산 정상에 설치된 십자가가 인상적이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계곡과 호수는 높이도 높이지만 경치가 정말 아찔하다. 넓은 초원을 지나 울창한 전나무 숲을 지나니 오늘 하루 밤을 보낼 빠줄라르 산장(Rifugio Vazzolar)이다. 비록 비좁은 방에서 트레킹의 마지막 하루 밤을 보냈지만 숲속에 위치한 포근하고 아담한 산장이다.



마지막 여섯째 날, 산장에서 서둘러 출발했다. 오늘 일정은 짧지만 일찍 트레킹을 끝내고 세계의 암봉이 우뚝 선 돌로미티의 상징인 트리치메(Tri Cime) 지역을 가기로 한다. 여제와 같이 시베타의 산허리를 돌아 침엽수림이 가득한 산길과 초원길을 지나면 카레스티아토 산장(Rifugio Carestiat)을 만나게 된다. 하얀색 건물에 빨간 창문이 아름다운 산장이다. 산장이 이뻐서 맥주 한잔과 더불어 점심을 해결한다. 나무가 울창한 편안한 산길을 돌고 돌아 중착점인 파소 두란(Passo Duran)에 도착한다. 벨루노(Belluno) 방향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돌로미티 알타비아 1 루트를 여기서 마치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서둘러 트리치메 지역으로 가기위해 차량에 몸을 실었다. 6일 동안 지나온 길을 차량으로 빠르게 지나오면서 생각에 잠긴다. 돌로미티 알타비아 1 루트를 돌고 돌아 회백색의 백운암 돌덩이들과 푸른 초원의 향연을 6일 동안 천상의 낙원에서 놀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기분이다. 당분간은 다른 여행은 가기 힘들 것 같다. 악마와도 같은 암벽과 천상의 초원의 풍경에 계속 빠져 있고 싶기 때문이다. E&C



C ommunication

언제부터였을까,
하늘바라기 한지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하루에도
몇 번씩 눈길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음의 짐이 무거울수록
머릿속 생각이 복잡할수록
해를 쫓아가는 해바라기처럼
하늘 우러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봄 햇살처럼 수줍은가 하면
때론 반항기 소년같이
장대비 몰고 와 심통을 부릴 때도 있었다.
실연의 아픔을 떠안은 청춘처럼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가뒤편하는 모습은
연민마저 일게 하였나니.

표정을 달리하는 하늘과 내통하며
희로애락의 경계를 마구 넘나드는 나는
말 못할 고민과 들리고 싶지 않은 비밀,
오늘도 두서없는 독백을 풀어 놓는다.

내리는 눈만큼 그리움이 쌓이고
불어오는 바람만큼 후회가 밀려든다.

한 무리의 철새 떼가
가물가물 사라지는 허공,
지상의 모든 것을 묵묵히 수용하는 너로 인해
비로소 그늘진 마음에 별이 들기 시작한다.

청정 자연의 고원,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



01



02

평균 해발높이 600미터, 국토의 등줄 백두대간이 지나는 평창은 고원의 도시다. 겨울이 길고 적설량이 많아 우리나라 겨울스포츠의 메카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용평스키장을 비롯해 세 개의 큼직한 스키리조트가 있고, 대간을 따라 선자령, 대관령 목장 같은 목가적인 풍경들이 펼쳐져 사시사철 트레킹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대산 자락에는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가 들어서 있다. 숲이 그윽한 월정사 전나무 숲길부터 시작되어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선재길은 고즈넉한 풍광을 즐기며 걷기 좋은 길이다.

관동의 관문, 대관령

해발 865m의 대관령은 평창과 강릉을 가르는 경계이자 길목이다. 철로가 놓이기 전까지 강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이었다. 지금은 산 아래로 터널이 뚫려 사철 드나드는 일이 수월해졌지만 예전의 겨울 대관령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그 옛날 강릉사람들에게 “강릉에서 나서 평생 대관령을 한 번도 넘지 않고 죽으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먼 옛날의 짙진결레 이고 넘던 시절은 아니더라도 차량이 넘던 이 길도 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눈이 오는 날 대관령을 넘던 차량들은 고립되기 일쑤였고 아예 길이 끊기는 날도 허다했다. 그래서일까? 대관령은 시원스런 풍광과 무수한 이야깃거리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 여행지로서의 매력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관령은 신령스런 고갯마루다. 매해 단오에 펼쳐지는 강릉단오제의 주인은 대관령에 사는 국사서낭신이다. 강릉 굴산사 부근 마을의 처녀 하나

01 강원도 깊은 산사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상원사 02 선자령의 목가적 풍경 03 선자령 초입에 자리한 대관령 국사서낭당 04 서낭당에는 범일국사의 그림이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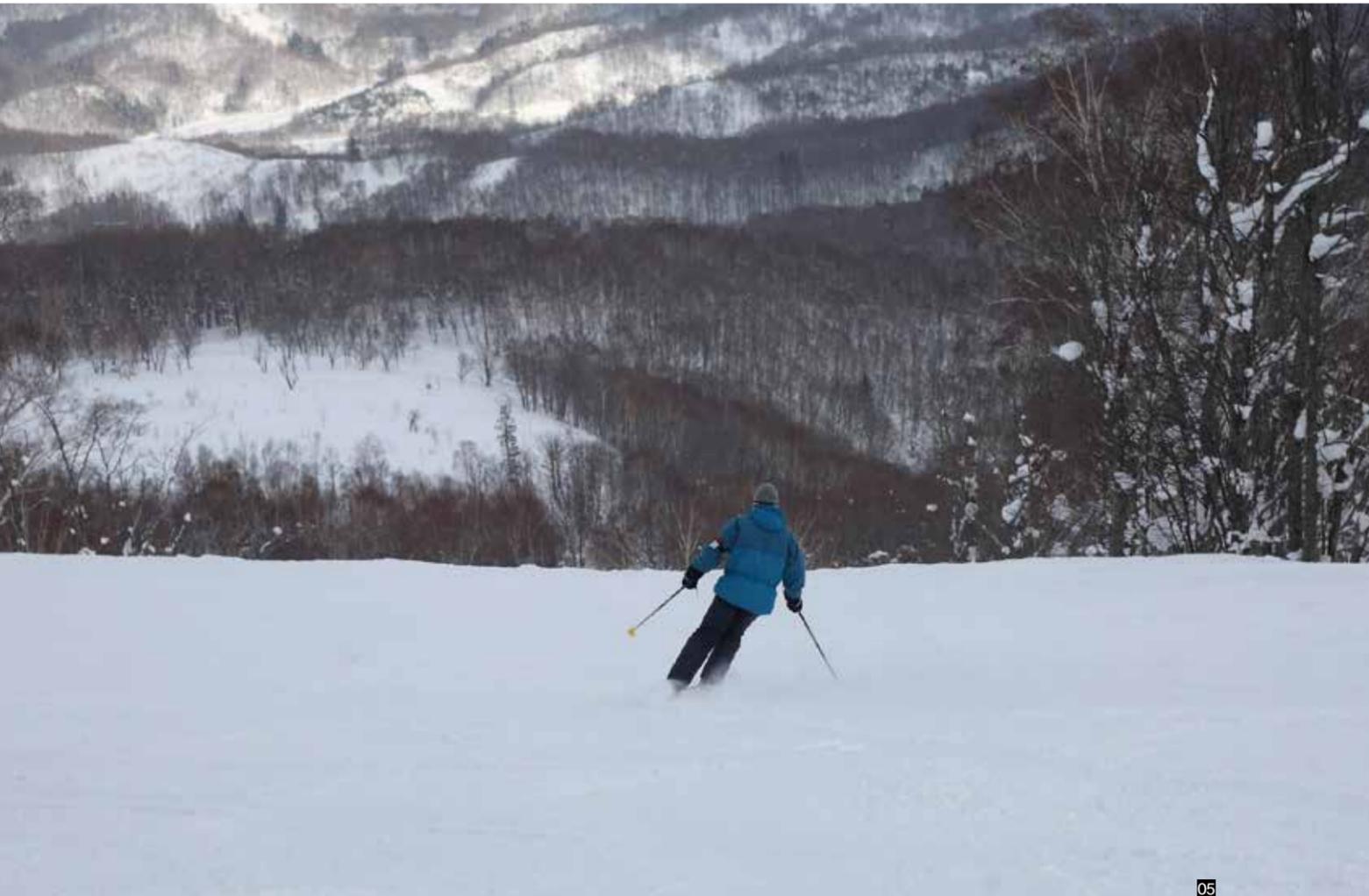
가 절 앞 샘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뜨니 물속에 해가 있었다. 물을 마신 처녀는 아이를 잉태했고 머지않아 아이를 낳았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마을사람들은 손가락질할 했고 결국 처녀는 아이를 산에다 버렸다. 아이는 날짐승과 산짐승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훗날 큰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신라의 범일국사였다. 범일국사는 천년을 살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대관령에 올라 술법을 써서 왜군들을 무찔러 강릉을 지켜냈다. 그 후 그는 강릉의 수호신이 되어 대관령 국사서낭당에 모셔졌다. 강릉 단오제의 시작은 대관령 국사서낭당의 제례로부터 시작된다. 국사서낭당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 등산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03



04



05

대간을 따라 이어지는 목가적 풍경, 선자령 길

선자령(1,157m)은 대관령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백두대간에 솟은 봉우리다. 대간길이 지나는 길목이지만 능선은 험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평평하다. 대관령에서 선자령을 거쳐 황병산에 이르는 길목의 산세가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1972년, 이곳에는 삼양목장이 들어선다. 삼양목장은 그 넓이가 1,983만㎡로 여의도 면적의 6배나 되는데, 여름이면 이 드넓은 공간으로 푸른 초지가 펼쳐져 목가적 풍경을 일구어 낸다. 근래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었는데, 드넓은 초지 곳곳에 세워진 풍력발전기가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다. 선자령 트레킹 길의 시작은 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부터 시작된다. 국사성황당 이정표를 따라 1km 정도 가면 KT 통신 중계소가 나오는데, 이곳을 지나 시멘트 길을 계속 오르면 선자령 길로 이어진다. 국사성황당을 거쳐 셋길로 올라도 된다. 국사성황당과 반정갈림길을 지나 10여분을 가면 새봉전망대가 나타난다. 전망대에 오르면 사방으로 시원스런 풍경이 펼쳐진다. 전망대 앞 쪽으로는 강릉시와 동해바다가 조망되고, 뒤편으로는 넘실넘실 구름이 이어지는 황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새봉전망대에서 선자령까지는 2.5km다. 해발 1,000미터가 넘는

05 겨울레포츠의 꽃 스키 06 백두대간 선자령 표지석 07 선재길이 시작되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08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09 상원사 동종의 섬세한 조각



06



07



08



09

산길이지만 거의 평지를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오를 수 있다. 선자령 정상부에 다다르면 거대한 풍력발전기들 사이로 길이 이어진다. 너른 구릉 위에 솟아있는 풍광이 독특하다. 단 이곳의 겨울은 바람이 거센 것으로 유명하다. 제대로 바람이 불 때면 얼이 속 빠질 정도로 춥다. 방한복과 함께 방풍복을 꼭 챙기는 것이 필수다.

오대산의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산책길이다. 하늘을 가릴 듯 짙은 전나무가 도열하듯 늘어서 있는데, 침엽수림의 울창함이 주는 청량감이 말할 수 없이 좋다.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당나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자장율사는 석가모니의 정골사리를 오대산에 봉안하고 적멸보궁을 창건했다. 그리고 2년 후 동대 만월산 아래 월정사를 세우고 경내에 팔각구층석탑을 건립하여 그 안에 진신사리를 봉안했다. 월정사 중심으로 오대산의 다섯 암자는 신라 시대 불교의 성지로 추앙받으며 성장했다. 다만 한국전쟁 때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어 옛 건물의 운치를 느낄 수 없음이 아쉽다. 다행히 경내의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이 잘 보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월정사를 지나 8km를 올라가면 상원사가 나온다. 신라 성덕왕 4년(705)에 창건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모시는 문수선양의 중심지다. 성덕왕이 왕자이던 시절 오대산 비로봉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사찰을 건립한 것에서 유래한다.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 온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영험하다는 상원사로 기도를 하러 오던 중 더위를 시키고자 계곡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마침 동자승이 지나가기에 등을 씻어달라고 부탁했다. 등을 씻는 동자승에게 세조가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자 동자승이 말하길 “대왕도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놀란 세조가 다시 몸을 살피자 종기가 씻은 듯이



10

나아 있었다. 이듬해 다시 상원사를 찾은 세조가 예배를 하러 법당에 들어서는데 이번엔 난데없이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세조의 옷을 당기며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세조가 법당을 살피게 했더니 그곳에 자객이 숨어 있었다. 자객을 참수한 세조는 고양이를 전담을 하사했다. 대웅보전 밑에 있는 고양이의 석상과 관련된 유래이다.

평창의 겨울축제

1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부면 오대천 일대에서 열리는 송어축제는 청정 평창의 대표적 겨울축제다. 송어는 섭씨 5도 이하의 물에서 자라는 냉수성 어종으로 기름지고 찰진 육질에 칼슘이 풍부하다. 민물고기 중 유일하게 안심하고 회로 먹을 수 있다. 평창군 미탄면의 동강자락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송어양식장이 들어선 곳이다. 하지만 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송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함경도 바다에서 태어나 오뉴월이면 때를 지어 강줄기를 타고 산골 시내 석벽에 올라가 소나무에 몸을 비벼 떨어진다며 '몸에서 소나무 향이 난다고 송어'라고 했다. 송어축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어를 잡고 요리를 해먹을 수가 있다. 송어낚시는 1만3000원, 맨손송어잡기는 1만5000원, 텐트예약낚시는 2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 직접 잡은 송어는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평창읍과 미탄면 일대에 자리한 송어 전문점을 찾아가도 된다. 송어회는 보통 1인분에 1만5000원이면 맛볼 수 있다. 송어매운탕도 꼭 맛봐야



11



13

14

할 겨울철 별미다.

대관령 눈꽃축제가 평창 대관령에서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황계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1993년 처음 시작된 대관령 눈꽃축제는 2000년 상반기 전국 12대 문화축제로 선정되는 등 강원도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해 왔다. 이번 축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자축하는 승리의 축제로 더욱 더 풍부해진 즐길 거리와 색다를 테마별 체험 이벤트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바람에 익는 황태, 대관령 황태덕장

대관령 주변마을인 황계의 풍광 중 또 하나 색다른 것은 황태덕장이다. 원래 북한 함경도 원산지방에서 유래된 황태덕장은 전쟁통에 남으로 내려온 실항민들에 의해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이곳 평창군 도암면 황계리에서 새로이 자리를 틀게 되었다. 마침 이곳은 바람이 강하고 겨울이 유난히 추워 황태덕장으로서의 기후요소가 적합했던 것이다. 이른 새벽, 동해안의 묵호나 주문진항으로 잡혀온 명태들은 내장을 빼낸 후 황계로 들어온다. 황계천의 두터운 얼음물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두 마리씩 짝으로 엮어 덕장에 거는데 해마다 11월 무렵부터 내걸리기 시작하는 명태는 이듬해 3월 말까지 대관령의 칼바람과 추위 속에서 얼고 마르기를 반복하며 맛있는 황태로 거듭난다. 겨울이 매서울수록 황태의 맛은 좋아진다. 온도가 낮고 바람이 많이 불수록 황태의 살이 양념을 빨아들이는 힘이 세어지기 때문이다. 만평에 이르는 드넓은 땅 곳곳에 내걸린 황계의 황태들은 칼바람 속에서 겨울을 난다.

평창여행 tip

- 강원도에도 KTX시대가 열렸다. 12월 22일부터 운행되며, 서울에서 강릉까지 114분, 청량리역에서는 86분이 소요된다. 주중 18회, 주말 26회,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매일 51회가 운행될 예정이다.
- 송어축제 안내 <http://www.festival700.or.kr>
- 눈꽃축제 안내 033-335-3995

10 알펜시아 스키장에 설치된 스키점프대
11 겨울추위로 잊게 만드는 맨손송어잡기
12 바람에 익어가는 덕장의 황태 13 잡혀 올라오는 송어의 씨알이 굵다 14 송어축제는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살로 뺏겨버린 정치는 예쁜 여자처럼 사랑을 훔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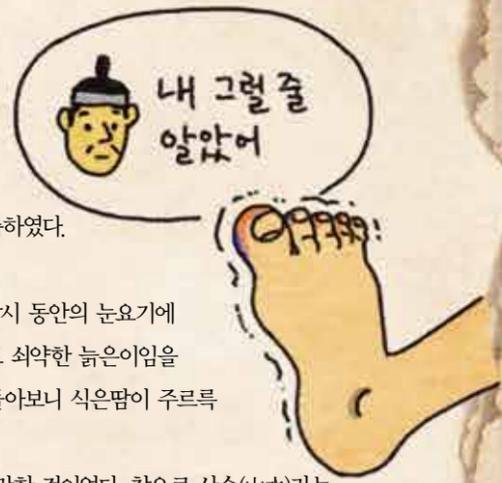
일기분류 : 유산일기
출 전 : 금강록(金剛錄)
시 기 : 미상
인 물 : 정엽
주 제 : 금강산의 유람
장 소 : 강원도 통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강원도 화양군

◆ 강직한 언론과 과감한 계책으로 임금을 보필했던 정엽(鄭曄)

이 이야기는 정엽이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고생스러움을 표현한 대목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엽(1563~1625)은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자는 시회(時晦), 호는 수몽(守夢)이다. 정희년(鄭熙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선(鄭璇)이고, 아버지는 진사 정유성(鄭維誠)이다. 어머니는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윤언태(尹彦台)의 딸이다. 정엽은 3세 때부터 글을 배워 4세 때는 벌써 시를 지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이와 정유길로부터 신동이란 찬사를 받았고, 토정 이지함의 주선으로 송익필에게 학문을 배웠다. 자라서는 성혼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였고, 당대 유명인사들과 교류하였다. 21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 황해도 황주판관으로 근무중이었는데 왜군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이 발발하였을 때는 일본의 침입을 명나라에 알리는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왜란의 와중에 서천의 군수로 재임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려 크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광해군이 집권한 이후 권력의 실세인 정인홍이 정엽의 스승인 성혼과 그 문하생들을 배척하여, 정엽도 관직이 좌천되어 함경도 중성의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교육을 크게 부흥시키고 오랑캐 수만 명의 침입을 막아내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간신의 농간에 의해 동래로 유배되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을 강화도에 위리안치 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정엽은 비록 폐위된 왕이라도 한 때 임금으로 모신 이였으므로 그가 유배 갈 때 곡을 하며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주변에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인조 정권에서는 여러 중요 직책을 맡아 동분서주하였다. 이괄의 난 때는 인조 임금에게 공주로 피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네 가지 직임을 함께 겸하여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병을 얻어 63세로 사망하였다. 저서로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와 『수몽집』이 있다.



1618년 4월, 정엽(鄭曄)은 두 사위와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고 있었다. 그 황홀한 경치에 넋을 빼앗기며 때론 가마로, 때론 걸어서 금강산 곳곳을 다니던 중이었다. 고갯길에 도착하자 발도 디딜 수 없는 좁은 길이 이어지자, 정엽은 노구를 이끌고 걸어서 고갯길을 지나고 있었다. 오래 걸으니 다리가 무겁고 발이 부르텠다. 할 수 없이 정엽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마를 탔다. 앞뒤에서 끌고 당기며 좌우에서 부축하였다. 그 좁은 길을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날 수 있었다. 정엽은 고갯길을 벗어나자 참으로 구차하던 생각이 밀려왔다. 산수를 감상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눈요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눈요기를 위하여 한 몸을 위태롭게 하다니 우습지 않은가? 스스로 쇠약한 늙은이임을 알지 못하고 이번 행차를 한 것을 깊이 후회하였다. 골짜기를 내려온 후 왔던 길을 되돌아보니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말 스스로가 황홀히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깎아지른 길이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 그 힘든 길을 지나 시내물가에 앉아 둘러보니 또 그 구경이 불만한 것이었다. 참으로 산수(山水)라는 것이 음란한 음악이나 예쁜 여자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그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돌아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진이나 지혜로운 이들도 요산요수(樂山樂水) 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발을 싸매고 몸에 땀이 흘러도 고생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목말라도 그만두지 못하여 미친 사람 같이 굴겠는가! 정엽이 보기에, 그런 증상은 특별히 본인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팔방의 사람들이 천릿길에 식량을 싸들고 달려서 모여든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피로함을 잊고서 고생을 참지 않는다. 오로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절경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물며 세조는 지존의 몸으로도 이 멀리까지 수고로운 걸음을 하였고, 도를 닦는 선인들도 모두 여기를 거쳐 갔으니 고금도, 귀천도, 현명함과 어리석음도 없는 것이었다. 부지런히 구경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시를 지어 읊고, 책을 읽고 하는 것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 정녕 금강산이 천하의 이름을 독차지하고는 사람들을 흘려서 미혹시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러한 생각 끝에 눈을 들어 다시 풍광을 바라보면 다시 스스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정엽은 한숨과 실소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지열은 있는 지리여행의 가치

홍해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요즘 이와 관련된 보도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수습이 잘되고 있는 모양이다. 요즘 같은 혹한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파국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필자의 '지리학과 교수의 포항 홍해 지진 답사기'를 본 한 독자로부터 메일이 있었다.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여부를 발전소 측과 따지고 있으니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진 찍는 것도 빠듯했던 만나질 답사였으니 기름기 뜬 논의 물을 채수했을 리 만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물이라도 좀 떠볼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다 생각 부족이다.

지열(地熱). 지열을 논할 때 일본보다 더 좋은 곳도 없다.

판과 판이 부딪혀 달궀진 땅. 지열 발전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 이 바로 일본이다. 구마모토, 벳부, 운젠, 우레시노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슈의 온천지는 그야말로 지열로 가득한 곳이다. 사실 일본 전역이 그렇다. 광천인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온천 마크를 여관 표식으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고 일본인들은 깜짝 놀란다. 한국에 온천장이 이렇게도 많았냐며 말이다. 민망한 일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가고시마(鹿兒島). 가고시마는 사쿠라지마(桜島)로 유명한 곳이다. 2만 9천 년 전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이라(始良) 칼데라가 생긴 다음, 3천 년 후 남쪽에서 터진 화산이 사쿠라지마란 섬을 만들었다(그림 1, 사진 1). 지금의 긴코완(錦江灣)은 아이라 분화로 형성된 함몰 분화구인 것이다. 아이라 폭발은 1주일 만에 두께 60m의 화산재를 쌓아 '시라스'라는 이름의 대지를 만들었다. 가고시마 주변 지형이 일자형으로 평탄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사진 2). 1946년의 사쿠라지마 대분화는 용암을 동쪽으로 흘러보내 섬을 육지로 만들었다.

'hot spring' 자체인 화산 지대의 지하수

화산 지대의 지하수는 'hot spring' 그 자체다. 사쿠라지마의 온천 수온은 51°C. 찬물을 섞지 않고는 도저히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이부스키(指宿) 해안의 스나무시(砂むし, 모래찜질, 사진 3)는 지열의 결정판이다. 바다로 흐르는 온천수가 덥혀놓은 모래가 얼마나 뜨거운지 10분 이상의



그림 1. 일본 규슈 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 검은 원으로 둘러싸인 긴코완(錦江灣)은 2만 9천 년 전에 형성된 아이라 칼데라가 만든 것이다.



사진 1. 일본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2만 9천 년 전의 화산 분화로 섬이 되었다가, 1946년 용암 분출로 인해 동쪽으로 육지와 연결되었다.



사진 2. 사쿠라지마에서 바라본 시라스대지(大地). 2만 9천 년 전의 아이라 분출시 퇴적된 화산재가 높이 60m의 시라스대지를 만들었다. 마치 해안단구처럼 평탄한 모양을 하고 있는게 흥미롭다. 사진 속 바다는 아이라 칼데라에 해당되는 지역이다(그림 1)



사진 3.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해안의 스나무시(모래찜질)



사진 4. 일본 규슈의 한 지열발전소 모습

찜질욕을 금하고 있다. 이런 곳이야말로 바로 지열을 말할 수 있는 곳이다. 후쿠시마 쓰나미, 고베 지진과 같은 대자연재해와 화산·온천의 관광을 맞바꾼 일본. 일본을 볼 때마다 '천혜'의 자연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이 된다.

유학 때의 일이다. 대학원 시절 일본의 한 지열발전소를 답사한 적이 있었다. 뜨거운 지하수를 뽑아내 터빈을 돌린 다음, 그 물을 다시 환수공을 통해 땅속으로 집어넣는데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 터빈을 돌린 지하수 수온을 아무리 낮춰도 계곡수온과 1°C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 1°C의 수온 차이가 생태계 교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이어졌다. 1°C를 낮추는 일이 그들에겐 큰 명제였던 것이었다.

그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문제가 머리를 스쳤다. 7°C 정도 높은 온배수를 방출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 물론 30년 전의 일이니 지금 애써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은 이미 1988년 1°C의 수온 제어에 그들의 연구 역량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진도 2~3을 각오하고 물을 쏟아부어 지열을 얻어내려는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다. 환경에 국경 따윈 없다. 잠시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을 명심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지리여행을 통해 지구와 대화하자

지리여행의 가치는 바로 이런 데 있다. 지구에의 겸손함을 격려하고 거만함을 불허한다. 지구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풍요를 나눈다. 지구에 무관심한 사람은 '등시민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지구를 소박하게 가꾸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무개념 소비자일 뿐이다. 지리여행은 그들을 친자연형으로 바꿀 수 있는 돌도 없는 보약이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심터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힐링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힐링을 하려면 자연과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를 대하는 인식의 차이가 그렇다는 말이다. 자연을 존중하고, 지구 속 일원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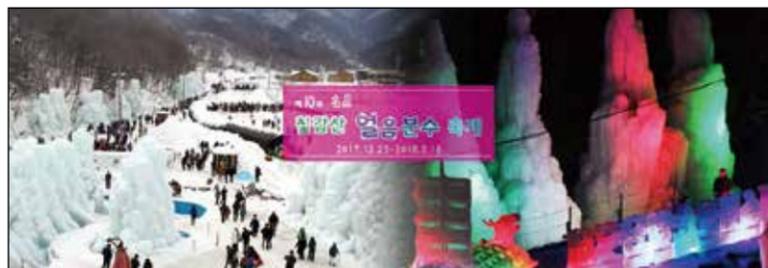
이러한 과학 칼럼이 필요한 이유도 일반인들의 과학 상식을 높이는 목적이 우선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함에 있다. 내년부터 개설되는 인문계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과과 바로 이런 사고(思考)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마지막 칼럼을 지열로 시작해 지구 사랑의 가치로 끝내려는 필자의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 E&C

Culture

Festival

제10회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기간 : 12월 23일 ~ 2018년 2월 18일 장소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174번지



“동화나라 친구들 모여라”

커다란 얼음분수가 만들어 놓은 알프스 성에 동화나라 캐릭터들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칠갑산 겨울왕국. 칠갑산에 까만 어둠이 내리면 하얀 얼음분수와 조각품들이 화려한 웃으로 갈아입는 야간개장.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연인들에게는 겨울철 데이트코스로서 안성맞춤. 5분거리에는 1박 2일 촬영지로도 유명한 전국 최장의 천장호 출렁다리.

겨울엔 칠갑산 겨울왕국!

www.alpsvi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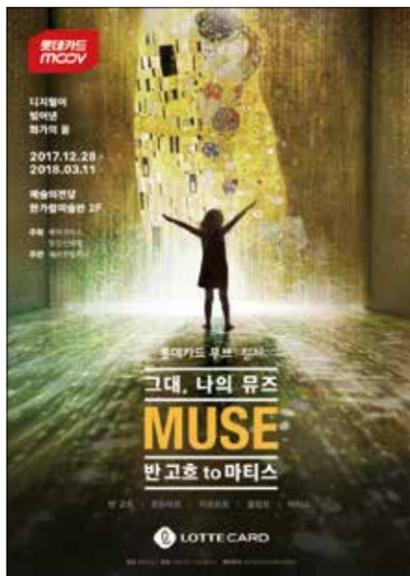
Exhibition

그대, 나의 뮤즈 MUSE : 반 고흐 to 마티스

기간 : 12월 28일 ~ 2018년 3월 11일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반 고흐가 느꼈던 남프랑스의 노란 태양과 따뜻하게 쏟아지던 햇살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르누아르가 관찰했던 파리시안들의 휴식을 영화처럼 옆에서 지켜보다가, 시공간이 멈춘 창백한 파리 시내를 카유보트와 함께 산책한다는 상상을 해 본적이 있는가? 클림트의 황금빛 물결에 두 발을 담글 수 있다면, 또 마티스의 그림 속 주인공들이 유쾌한 재즈의 리듬에 맞춰 내 눈 앞에서 춤을 춘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당신이 전시장에서 만날 경이로운 장면이기도 하다. 반 고흐, 르누아르, 카유보트, 클림트, 마티스, 5인의 거장은 어떤 뮤즈를 만났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을까. 이 전시는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공감하기 위해, 그림에 기술과 상상을 더했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삶 속에서 뮤즈를 만난 순간을 당신의 눈으로, 머리로, 손끝으로, 마음으로, 바로 이 곳에서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 영감의 순간은 멀리 있지 않다.

www.sacticket.co.kr



Book

개인주의자 선언 :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

“판사유감”을 통해 현직 판사로서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개인주의자 선언』은 소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저자가 보고 겪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개인의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저자는 자신을 개인주의자로 명명한다. 그리고 책은 이러한 개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인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삼는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 필수적임을 이해하는 것. 그렇기에 사회에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자신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을 수긍하고, 더 나아가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하는 것.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회의식이 균형을 이룬 사회, 그것이 바로 저자가 꿈꾸는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다.

문유석 저 | 문학동네



Movie

쥬만지 : 새로운 세계

학교 창고를 청소하다가 낡은 '쥬만지' 비디오 게임을 발견한 네 명의 아이들.

게임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거대한 몸집의 고고학자 닥터 브레이브스톤(드웨인 존슨)으로 변한 공부벌레 스펜서, 슈퍼 여전사 루비 라운드하우스(카렌 길런)가 된 운동신경 제로 마사, 저질체력의 동물학 전문가 무스 핀바(케빈 하트)가 된 예비 풋볼선수 프리지, 종년의 지도 연구학 교수 셸리 오베론(잭 블랙)으로 변해버린 SNS 중독 키타 베서니까지. 이들은 자신의 아바타가 가진 능력으로 게임 속 세계를 구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현실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전설의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

상영중



KEPCO E&C News

● 2017년도 제10차 이사회 개최

2017년도 제10차 이사회가 지난 12월 15일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상임 및 비상임이사 등 총 6명이 참석한 이날 부의안건으로는 취업규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 이동근 상임감사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우리 회사 이동근 상임감사가 지난 12월 21일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최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7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서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서 환경통일포럼을 개최해 남북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환경통일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해 통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등 남북교류 활동을 장려하고 통일기반 구축에 꾸준히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이동근 상임감사는 지난 6일에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2017 공공정책대상 수여식'에서 우리 회사 반부패 청렴윤리 시스템 구축과 대내외적인 청렴문화를 확산한 공로로 '2017 공공정책대상'도 수상했다. 공공정책대상은 입법,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 기업 등 5개 부문에 걸쳐 각 분야에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공정책 방향성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 2017년 스페셜리스트 워크숍 개최

'2017년 스페셜리스트 워크숍'이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과 기술전문분야 스페셜리스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7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스페셜리스트들이 회사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활동을 보다 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스페셜리스트의 전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우수 전문활동 사례 발표(직무특허 출원, 대외 논문발표), 스페셜리스트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스페셜리스트 제도 발전방향 토론에서 경험기술의 내부 확산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수종 기술에 대한 도전과 대외 전문활동의 확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은 "각 기술분야의 최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들이 전문활동을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페셜리스트들이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사내 전문가를 넘어 해당 기술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신서천화력 보일러 헤비거더 상량식 개최

우리 회사가 설계를 맡고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보일러 헤비거더(Heavy Girder) 상량식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26일 건설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김재원 에너지신사업본부장과 중부발전 광병술 부사장을 비롯한 각 시공사 사업책임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000MW 석탄화력발전소로 2021년도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2020년 4월에 보일러 최초점화 및 2021년 3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이번 보일러 헤비거더 상량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보일러 압력부 설치공사 및 발전설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서천 마량리 해변 및 동백나무 숲과 어울어지는 미관을 고려한 친환경발전소로 설계·건설되고 있다. 회사는 국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신뢰성 있는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설계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지역사회 기업들과 청렴문화 교류

회사는 지난 10월 24일 김천산업단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초청 청렴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킴벌리, 코오롱인더스티리, 롯데푸드 등 김천지역 소재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가했다. '청렴투어 프로그램'은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공유·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청렴영상시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청렴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우리 회사가 청렴문화 강화를 위해 도입한 '감사 직소 신문고', '청탁물품 사전예방 시스템', '보여주는 청탁금지 캐비닛' 등 청렴윤리 사례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김천지역 민간-공공기업이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청렴윤리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7년도 제10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0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분	선정자	추천자
친절직원	신(전)기계측기술그룹(원급) 김 장 현	신(전)기계측기술그룹(책임급) 김 창 현
	원(사업관리실(원급) 김 효 연	계약실(책임급) 김 유 수
모범직원	신(사업관리실(원급) 구 자 일	신(기계배관기술그룹(책임급) 이 민 화
	기계설계그룹(책임급) 고 광 적	기계설계그룹(책임급) 이 호 중



이걸 어떻게 받아?

| 감사표시 특산물 선물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원은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감사표시 특산물 선물



감사 선물을 되돌려 주는 건 예의에 어긋날것 같아요.

감사선물 또한 즉시 반송해야 하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 보내온 선물을 되돌려 보낸다면 자칫 마을주민의 정성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단별 윤리행동강령 책임자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 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배드민턴회



한기배드민턴회(회장 이소림)는 지난 12월 4일 김천시 주관으로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김천시와 이천공공기관 친선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안전공단, 우정사업조달센터, 김천시청 등 총 6개 팀에서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배드민턴 교류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대회는 김천시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의 시범경기 후 예선 풀리그와 결선 토너먼트 방식에 의한 단체전(5복식 3선승제)으로 치러졌다.

우리 회사는 예선전에서 김천시청과 도로공사를 각각 4:1로 완파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하였으나 결승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3:2로 아쉽게 패함으로써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시상식과 식후행사에서는 박보생 김천시장과 류홍재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천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김천시와 이천기관 간 배드민턴대회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한기배드민턴회는 매일 저녁 울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뜨거운 운동 열기로 한 겨울을 녹이고 있다.



사우 애경사



이웅 대리



백선희 사원



조진호 과장



결혼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백선희 사원 : 11월 12일 부산 디엘웨딩홀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홍정현 사원 : 11월 12일 안성 THE AW 컨벤션
- ▶ 신사업개발처 함정훈 대리 : 11월 18일 부산 누리엔웨딩홀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그룹 이웅 대리 : 11월 18일 대구 M스타하우스
- ▶ 원자력)사업처 조진호 과장 : 11월 19일 대구 수성호텔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조혁수 과장 : 11월 25일 유성컨벤션웨딩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주영환 사원 : 11월 25일 소노펠리체 컨벤션

부음

- ▶ 인재개발교육원 남천우 처장 모친상 : 11월 3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지석 과장 장모상 : 11월 8일 삼성서울병원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양현정 과장 장인상 : 11월 9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권영석 부장 부친상 : 11월 12일 예지원 요양병원
- ▶ 신사업)토목건축기술그룹 김동규 부장 장인상 : 11월 13일 양평 길병원
- ▶ 신사업)사업책임자실 백승우 처장 장인상 : 11월 15일 수원 아주대병원
- ▶ 원자로)안전점검실 김선기 상무 장모상 : 11월 16일 대구 모례아장례식장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최성기 부장 부친상 : 11월 17일 삼성의료원
- ▶ 경영지원처 강봉주 과장 부친상 : 11월 26일 동수원병원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강동파 차장 장모상 : 11월 27일 충남대학교병원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장근백 부장 부친상 : 11월 30일 분당 차병원

동우회 동정

동우회 창립 제28주년 기념 자족연 행사 개최
한전기술동우회는 창립 제28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선릉역 인근 '동보성' 중식당에서 자족연 행사를 가졌다. 정근모 전 장관, 이종훈 전임 사장을 비롯한 동우회 고문, 자문위원 및 현임원들이 참석했다.

2017 추계 문화탐방 행사 개최
한전기술동우회는 2017 추계 문화탐방 행사를 지난 11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결혼

- 송우석 회원 자녀 : 11월 12일 스퀘어웨딩홀
- 박원찬 회원 자녀 : 12월 2일 가든파이브웨딩컨벤션
- 신동욱(토목) 회원 자녀 : 12월 9일 더컨벤션교통회관
- 이석준 회원 자녀 : 12월 16일 피에스타귀족

부음

- 최일남 회원 본인상 : 11월 8일 삼성의료원
- 고영곤 회원 모친상 : 11월 9일 서울성모병원
- 김근화 회원 부친상 : 11월 13일 충남대학교병원





망해사

Writer 김교상 원자로서업관리실 부장

바다로 목을 내민 망해사 대웅전
 처마 끝에 걸린 목어
 꼬리지느러미 퍼덕이며 비늘을 말리고 있다
 수평선은 풍경을 향해 달려오고
 서성이다 지워졌다 다시 밀려간다
 텅 빈 목어의 뱃속
 구멍 송송 뚫린 개펄을 품는다
 섬들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파도
 거친 붓질로 빗살무늬 문양을 새긴다
 포구의 옆구리에 노을이 젖어들면
 날배 끌고 조개잡이 떠난 아낙들
 해류를 타고 물새떼처럼 돌아오는 저녁이다

찬불소리 어둑어둑 뿔 속으로 녹아든다

빛나는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昨天的 특별함에 비해
 오늘의 특별함이 평범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채워온 날들과 그 날들의 최선은
 우리가 만들어낸... 반짝이는 유일무이한 역사입니다
 아침을 만드는 태양도 수십억년을 반복하여 뜨지만
 매시각 전혀 똑같지 않은 지구를 만들어 내듯이
 십수년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하는 우리도
 매일 새로운 모습의 장면들을 멋지게 만들어 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루하루 빛나는 존재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

